

믿음의 제 3의 가능

창 12:10-20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 라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복을 받기보다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걸...’ 이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당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일이 잘 안되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자 좌절해서 교회와 멀어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0 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잠시 동안 애굽에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에겐 커다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긴 여행과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그에게 닥쳐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난 기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잡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는 헛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고 실패는 그냥 실패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성도들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기근이 없으면 좋겠지만 기근이 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병에 안 걸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병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배우고,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라는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기도 대신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바로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것은 믿음의 결정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피하여 도망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오자 본능적으로 자기 살길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삶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혹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탐내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과 불안이 그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또 그 어려움을 피해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 사래를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보, 사래 나 좀 봐요. 당신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요. 바로 그러한 점이 내 마음에 걸리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아리따운 당신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여인의 남편이지’ 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지 모를 일이지요. 그러니 여보! 애굽 사람들을 만나거든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면 좋겠소. 그래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게 아니요? 또 나한테도 잘 대해 줄 테고 말이요.” 겨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치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염려했던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사래의 미모가 소문나게 되었고, 바로 왕은 그 소문을 듣고 그만 아내 사래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만든 피는 아내 사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래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은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아내를 빼앗기고서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도 아브라함은 결정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두 개의 가능성 앞에서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답이 아니고, 저렇게 해도 해결될 수 없어서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개의 가능성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내 주었습니다. 대신에 16 절에 보면 ‘바로는 아브람에게 양떼와 소 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낙타 그리고 남녀 노예들을 선물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내어 주고 선물을 받은 이 아브람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래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바로 왕에게 받은 선물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아브람에게 있는 가능성은 2 개 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은 살아남을 것인가?’ 이 두 개의 가능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고민했습니다.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세운 두 개의 가능성이 아닌 또 다른 제 3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래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온 그 날 밤 바로와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7 절에 “여호와께서는 바로와 그 왕실에 벌을 내려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건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바로는 자기에게 미친 재앙이 바로 사래 때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래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래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진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제 3의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3의 가능성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평면적인 삶을 삽니다. 나와 가정, 나와 직장, 나와 사업, 나와 너, 모두가 평면적으로 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도 평면적으로 해결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문제를 평면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입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평면적인 시각을 가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입체적인 시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평면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제 3의 가능성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 사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제 3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악한 사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제 3의 가능성으로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방법,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제 3의 가능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평면적인 시각에서 입체적인 시각으로의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너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 3의 가능성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입체적인 시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